

[종합·해설]

한나라당 李-朴 검증청문회 쟁점별 요약

李 “도곡동 땅 내것 아니다”朴 “최태민 의혹 실체 없다”

이명박 청문회 쟁점과 답변

쟁점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답변
도곡동 땅 차명은 의혹	도곡동 땅은 내와 관계없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나한테 한푼도 안 왔다.
‘다스’ 실소 의혹	다스는 큰 형님과 차명이 같이 운영하느 회사.
표창 김만제 전 회장에 대한 도곡동 땅 매입 요구 의혹	(의혹을 전했다고 충격받았다. 김만제 회장이 나에게 전화를 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미안하다”고 했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뉴타운 개발정보 유출 의혹	대통령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인데 친·인척으로 알려진 회사에 정보를 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BBK 공동소유 의혹	BBK와 전혀 관련 없다. 설립때도 관여한 바 없다.
병역면제 경위	기관지 확장증으로 훈련소에서 퇴출.

1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민검증청문회에서는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 양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아나운서 송지현씨의 사회로 오전(박 후보), 오후(이 후보) 3시간씩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5개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협소한 장소 관계로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 제한된 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해 지지자들이 물린 지난 4차례의 정책토론회와는 달리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양 후보의 청문회 질의·답변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박근혜 청문회 쟁점과 답변

쟁점	박근혜 전 대표 답변
최태민 목사의 각종 비리 의혹	실체가 없으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일장은 아니다.
최 목사와 박 전 대표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의혹	애가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데리고 와도 좋다. DNA검사라도 해주겠다.
성북동 주택 등기부등본 부실 기재 및 증여세 탈세 의혹	신기수경남기업회장이 맡아서 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기 때문에 실체 기록은 없으나.
최 목사의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침묵 의혹	말도 안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계비 9억원 지급 여부	9억원이 아니라 6억원을 받았다.
정수장학회 기부 의혹	동의 못 한다.

檢, 김만복 국정원장 수사 착수

‘李 X-파일 의혹’ 특수1부 배당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김만복 한나라당 고문(전 포항제철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고문이 출두하면 같은 당 소속 서청원 고문, 박종근 의원, 황병태 전 의원과 함께 지난달 초 골프를 친 뒤 “1993~1994년 이명박씨가 3차례나 찾아와 자기 땅인데 사달라고 했다. 250억원에 사준 뒤 계약서를 갖고 온 것을 보니 (이 전 시장의) 형과 차남 이름으로 돼 있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가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고문이 김 고문으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전언해 이 후보의 차남인 김재정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앞서 서 고문과 박 의원, 황전 의원을 피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했다.

이명박

△채명재산·땅투기=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청문회에서 이 전 시장의 차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가 지난 85년 5~6월 도곡동 163번지 일대를 매입했다가 포탈에 매각, 대규모 차익을 챙긴 과정을 거론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직격탄을 날려 병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옥천땅 차명 하려면 애초에 했을 것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 면제 받아

국세심판소장 출신 김봉현 검증위원은 이 전 시장의 차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가 지난 85년 5~6월 도곡동 163번지 일대를 매입했다가 포탈에 매각, 대규모 차익을 챙긴 과정을 거론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직격탄을 날려 병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22년 전 일을 다 아귀가 맞게 (자료들)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큰 형은 소가 300마리 넘는 농장과 전기설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일했으니 어디서 돈을 만들어 샀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소유주가 김씨가 아니라 자신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실제 주인이 나라면 형님이나 김재정씨가 열심히 돈을 빼갔을텐데 자기 회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안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옥천 땅 50만평에 대한 투기위험과 관련, 이 전 시장은 “병색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건설회사 CEO다. 하필 지금도 팔리지 않는 협산을 투기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짓기로 해 합한 산을 사달라고 해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발정보=서울시장 재직시 친·인척들에게 개발정보를 미리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큰형 상은씨와 차남 김재정씨가 공동 경영하는 ‘다스’가 ‘홍은 프레스’를 인수, 삼내동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 천호동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며, 움직를 제한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강력한 요청과 천호동 집값이 떨어지자 요구에 따라 ‘천호 뉴타운’을 지정했으니까 움직를 역시 전임 시장 시절 이미 올려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역면제=이 전 시장은 병역 면제와 관련,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다. 갈 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갔을 것 같다”고 언급하고,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퇴출당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최태민 목사=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청문회에서는 박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관계가 단연 최대 검증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4년 사망한 최 목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박 전 대표와 함께 ‘구국여성봉사단’을 운영했고 새마을봉사단, 육영재단 등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인물로,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 목사의 사기, 횡령, 성추행 혐의 등을 적시한 내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박 전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동의 할 수 없어 육영재단 갈등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최 목사의 각종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몰랐다”, “처음 듣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보기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목사에 제재를 가하려 했다는 설 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육영재단=육영재단 갈등 사태와 그 과정에서 최태민 목사의 역할에 대한 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관련 의혹 제기에도 대부분 “오해에서 빚어진 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표는 82년부터 90년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수와 관공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히고, 육영재단 갈등의 ‘핵심’에 최태민 목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동생 근영씨가 90년 언론 인터뷰에서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관계가 단연 최대 검증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집은 당시 영남대 이사이던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증여한 주택으로,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통해 증여를 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경남기업의 영남대 건물 신축공사 수주 관련 ‘리베이트’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동의 할 수 없어

육영재단 갈등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

△정수장학회·영남대=정수장학회 강제헌납과 영남대 기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증위원들과 박 전 대표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정수장학회가 (선친 재임시) 강제 헌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닌 입증할 자료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재단의 국가 헌납 등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 지에 대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공익재단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북동 주택=박 전 대표가 청와대를 나온 뒤 81년부터 살았던 성북동 주택의 취득 경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집은 당시 영남대 이사이던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증여한 주택으로,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통해 증여를 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경남기업의 영남대 건물 신축공사 수주 관련 ‘리베이트’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동의 할 수 없어 육영재단 갈등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동의 할 수 없어 육영재단 갈등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

“도곡동 땅 실소유자는 이명박”

박광태 시장, 97년 이어 또 거론

지난 1997년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서울 도곡동 땅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소유설을 제기했던 박광태 광주시장이 19일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정수장학회가 (선친 재임시) 강제 헌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닌 입증할 자료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시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갖고 도곡동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포탈에 그 땅을 비싼 값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97년 10월 13일 포항제철을 상대로 열린 국회 통상산

檢, ‘朴-최태민 의혹’ 제기 김해호씨 구속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오세인 부장판사)는 19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원 김해호(58)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선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수사 전후의 행적과 정황 등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주중반: 2007.8.10(금)
- 주말반: 2007.8.11(토)
- 모집기간 : 7. 9(월)~8. 10(금)
- 수업기간 : 2007.8.10~11.16(4개월/15주)
- 수강료 : 25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령)
-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 (062)950-3584, 3585, HP: 011-614-4160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14개월 시범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14개월 시범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계/회계) 주말반(토) 시범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출근도중 또는 출근후 1주일 이내에 이력서 제출인 분
- ▶상시 근로자수기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외 모집
- ▶수료후 100~80% 환급
- ▶접수
- ▶수강절차 : 출근성당→출근수강신청서 작성→출근기간에 제출→수강
- ▶수강절차 : 출근성당→출근수강신청서 작성→출근기간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금 19 : 00~21 : 00(기초) ▶화목 19 : 00~21 : 00(기초)

●모집과정

- ▶정보통신과정보학도수업, 인터넷방송,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통관리능력
- ▶정보통신과정보학도수업,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모집대상
- ▶고용보험제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자재근로자
- ▶기타사항
- ▶수료후 100% 환급
- ▶접수
- ▶수강절차 : 출근성당→출근수강신청서 작성→출근기간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금 19 : 00~21 : 00(기초) ▶화목 19 : 00~21 : 00(기초)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 직업 전문 학교
등록번호 224-4560, 232-1088

특보: 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전초의 기회!!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울해반기 1300명 (사상초우)

2차 내년 초 1400명 (대모집)

7·9급 일반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행 개강 8월 1일

9급 교육행정직 000명 울해반기 시행 주야반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sof.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8월 1일 첫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4층

첨단점 971-0002 (7)도청 앞 전일빌딩 4층

광주점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4층

첨단점 971-0002 (7)도청 앞 전일빌딩 4층

www.kimyoung.co.kr

그동안 김영면임 15년여 경험

앞선 시작, 앞서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면임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8월 1일

울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희대(서울) 37명 합격, 고려대(한양) 30명 합격, 서울대 30명 합격, 성균관대 27명 합격, 중앙대 28명 합격, 연세대 28명 합격, 단국대 25명 합격, 한양대 25명 합격, 서울과학기술대 25명 합격, 한양대 25명 합격, 한양대 25명 합격, 한양대 25명 합격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